

나눔터

2005 · 봄

제49호

2●2005년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3●여는글 | 2005, 신명나게 펼쳐는 반성폭력운동

4●똥대! 상담소

8●여기는 여성주의 상담실 | 2004년도 상담현황

16●열린터이야기 | 열린터, 지난 10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10년을 전망하다

19●하담이야기 | 하담, 지난 1년의 이야기

21●기획좌담 |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2004년

27●기획 I | 2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그녀들의 목소리 세상을 울리다"를 마치고

| 말하기 대회 이후 세상은 장미빛이 아니지만...

| 참가신청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 말하기 대회

| 걸음이 느린 아이

35●기획 II | 정답이 아니라 바람이 우리를 이끈다

39●지금 법정에서는 | 검찰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성폭력 사실을 인정한 판결 나와

41●아웃집 놀러가기 | 하와이의 어린이 인권보호

46●인터뷰 | 상담의 깊이와 매력을 알아간다는 전성혜 선생님

48●상담현장 Q&A | 비디오진술녹화규정과 증거보전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49●새로 발간된 자료

51●신입활동가소개

52●회원소모임 동정 | 시끌벅적 재미나는 회원소모임들

53●아낌없이주는나무

55●미담 릴레이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 2층 ● 사무전화 (02)338-2890~2 ● 팩스 (02)338-7122 ● E-Mail : ksvrc@korea.com
● 전화상담 : (02)338-5801~2 성폭력 피해 생존자 단기보호시설 열린터 입소문의 (02)338-3562/Fax (02)338-1007
성폭력 피해 생존자 자립지원공동체 하담 입소문의 (02)338-3563
● 인터넷상담 : ksvrc@chol.com ● 홈페이지 : http://www.sisters.or.kr

2005년, 신명나게 펼치는 반성폭력운동

이미경 _ 본 상담소 소장



안녕하세요?

2005년 새 봄이 오고 있습니다. 상담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해 우리 상담소는 2,700여건의 상담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의 보금자리인 “열림터”가 개소 10년을 맞아 그동안 열림터 가족 251명의 지원체계를 돌아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소 초기부터 계획했던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작년 11월에는 2,500명의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성폭력 문제를 드러내고, 문화적 치유의 장으로 꾸며진 여악여락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2회 생존자말하기대회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과 새로운 힘을 주었고, 청소년을 위한 호신가이드북 마련과 성폭력사건지원자 매뉴얼도 새롭게 시도한 사업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과 반성할 점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좀 더 내실 있는 생존자 지원체계 마련이 과제로 남겨져있고, 여성운동이 제도화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 상담소가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성찰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와 애정 어린 비판,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올해는 좀 더 신명나게 반성폭력 운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주관하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국에서 여름밤의 함성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또 작년에 이어 여악여락 콘서트와 생존자말하기대회도 더욱 감명 깊은 시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부당한 폭력을 매순간 강력히 거부하며, 생존자들의 치유에의 강한 힘과 용기에 힘입어 사회변화를 위해 매순간 열심히 뛰며 즐겁게 활동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